

김재균-강기정 의원 또 감정 충돌

김재균 의원(북구 을)과 강기정 의원(북구 갑)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성과 폭언을 주고받는 등 갈등의 강도가 위협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광주 국회의원을 간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갈등은 구간 경계조정 등 지역 현안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오전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당 당직자 인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강 의원이 광주시당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민주 광주시당 운영 사고 고성·폭언 오가 구간 경계조정 등 지역 현안 악영향 우려

서로 고성과 폭언 등을 쏟아부었고 회의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이 겨우 뜯어 달리는 사태를 연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고성과 폭언을 주고 받았으며 동료 의원들이 나서 가가스로 물리쳐 충돌을 막았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광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의 갈등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전당대회 등을 거치며 겹겹이 쌓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시 강 의원이 주류, 김 의원이 비주류 측에 서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의원의 감정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구간 경계조정 등 광주 지역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을 내부에서는 은근히 '편 가르기' 형국도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공조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한 두번도 아니고 동네 참회할 일"이라며 "광주시민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이 시당 운영을 엉망으로 해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럴수록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먼저 폭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개인 간의 문제보다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소통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강 의원과 화해했으면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며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 논의 방향 어디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논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 밖 참석률은 높았지만...

與 '개헌 의총' 스타트... 親朴 침묵속 親李 개헌 설과

개헌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애초 국민의 관심 밖이라는 설임이 예상되던 개헌 의총 참석률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171명의 70%가 넘는 125명 안팎의 의원이 참석했다. 100명에 육박하는 친이계 의원들의 참석이 많았다.

개헌론에 반대, 무더기 불참이 예상됐던 친박(친박근혜)계도 전체 약 50명 중 절반이 약간 넘는 30여명이 참석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토론에 앞서 인사

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7년 4월13일 개헌에 관한 4대 원칙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오늘 의총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개헌 ▲권력구조재편이 아니라 기본권과 인권 등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요인이 되지 않는 개헌 등 개헌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개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발언신청자 17명 중 15명이 개헌찬성 발언을 했고, 개헌론에 부정적인 의원은 차명진 의원,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태 의원뿐이었다.

첫 발언에 나선 이근현 의원은 "헌법 헌법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개헌논의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박준선 의원은 "개헌을 해야 하더라도 다스렸더라도 지금 하는 게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인 만큼 대통령도 적극 역할을 하고, 영수회담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론 설과 이어지는 동안 친박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헌의총을 이끈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론 설과 이어지는 동안 친박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헌의총을 이끈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4월 재보선 '필승 카드' 부심

총선 전초전... 공심위 구성 지연·눈치 싸움 치열

강원지사 與 이계진·엄기영, 野 권오규·최문순 거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27 재보선 '필승카드'를 선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자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치고 있다.

양당은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를 구성, 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8일 현재 한나라당은 공심위 출범 시기를 2월 중순 이후로 늦추고, 민주당은 공심위 구성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필승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 후보를 본 뒤 공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권 연대 문제도 공천 심사를 늦추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큰 '빅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 후보를 둘러싼 평가가 극명히 엇갈린 상태고, 민주당의 경우 '인물'에 더해 야권연대 문제까지 겹쳐 애를 먹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강원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이계진 전 의원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 엄 전 사장은 정치 신인으로서 역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춘천 출신의 최문순 의원과 태백 출신의 최종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도가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가

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자 본인이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동의 경우 한나라당 내에서는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강계지역인 이곳에서 강재섭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준찬 전 총리의 영입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에 필적할 거물급 인사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경남 김해에서도 여야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태호 전 경기지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문제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사가 이어짐에 따라 새 인물 찾기에 나선 상황이며, 국민참여당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22평)를 3억 원에 매입했다가 이듬해 12월 5억 4000만원에 팔아 2억 4000만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이씨는 이어 2003년 서초구 방배동의 빌라(76평)를 7억 2천 200만원에 구입했다. 이 후보자 내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는 현재 시세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4년에는 자신의 명의로 이서초동 주상복합건물의 상가(18.6평)를 분양받은 뒤 1억 6000만원을 납부했다가 2005년 이를 3억 2000여만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대법관 후보자는 "반포동 아파트는 자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이 후보자 명의의 상가와 함께 매각해 방배동의 빌라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주선 '백두산 화산 조사' 방북 추진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8일 "국회 차원의 '백두산 화산 폭발 남북 공동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오는 5월 방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의 대표위원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객성된 남북관계로 인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백두산 화산폭발 남북공동모니터링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백두산 다시 분화할 경우 아이슬란드 화산의 10배 규모로, 동북아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된다는 것이 남북공동모니터링 사업의 배경이다. 박 의원은 남북공동모니터링을 위한 백두산 현지 조사를 위해 오는 5월 방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지 조사에는 남북한 국회의원과 지질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남북 각 공동대학 마련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 참여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며, 실무준비단 구성을 위한 남북 국회 예비접촉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병완 의원 오늘부터

지역민과 소통 의정보고회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 이 설 민심 청취에 이어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실시한다. 장 의원은 오는 9일부터 남구 월산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보고회에 들어간다.

장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송암산단 내 CGI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비 등 1232억원 확보 ▲광주야구장 건립을 위한 국비 300억원 확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40억원 추가 확보 등의 내용을 중점 보고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반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초전성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반반 09:00~12:30 ·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난과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3월 8일부터	19-22시	150,000원	230-7700-2
		매주 화요일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3월 4일부터	19-22시	150,000원	520-2516
		매주 금요일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3월 2일부터	19-21시	100,000원	520-2516
		매주 수요일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3월 9일부터	19-21시	100,000원	520-2516
		매주 목요일			

● 조선대 등록·2월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2월1일 부터 - 전화 등록 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명, 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의 2명
영어(신경찬)의 2명
수학(주석진)의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